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0월 6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 음악도시팀장 김은효 ☎ 440-4017 • 담당자 한민선 ☎ 440-397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 스러움’ 음악으로 하나되는 인천 -**  
**가을의 정취를 포크 음악과 함께 ...2022 인천 포크페스티벌 개최**  
**- 10월 8일, 낮 12시 부터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서 열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2 인천포크페스티벌’이 오는 10월 8일(토) 낮 12시부터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음악도시 인천시가 주최하고 문화기획사 (주)몬스터레코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추억의 포크음악과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포크음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 인천포크페스티벌에서 들려줄 포크음악의 감미롭고 따뜻한 감성이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 MZ세대에게는 새로움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인천 포크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야외에서 ‘자연, 스러움’을 슬로건으로 대면 개최된다.

낮 12시부터 진행되는 프린지 스테이지에서는 어쿠스틱, 국악가요, 인디포크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 구성으로 범진, 백아, 구만, 허지영, 체인케이 등이 출연한다.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밤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되새길 수 있는 감동의 무대로 한영애, 여행스케치, 정동하, 육중완밴드, 데이브레이크, 소란 등 총 6개 팀이 기성세대와 MZ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크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방역 수칙 하에 안전한 행사 진행을 우선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며, 공연 정보는 인터넷(2022인천포크페스티벌.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상황에 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https://www.facebook.com/2022IncheonFF>

김경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 대중음악의 발상지인 음악도시 인천이 포크음악을 통해 세대를 잇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시민들을 위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 070-8615-2554

<붙임1> 포스터



<붙임2> 리플릿 외지, 내지

